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대도약, 해답은 '생태문명'

도, 정책협의회 8차 회의  
생태문명 종합계획 논의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발표  
산업지도 개편 상황도 공유

전북 대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고민하고 생각한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씩 모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문명 종합계획(안)과 산업지도 재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기찬 논의가 펼쳐졌다. 전북도는 21일 전북 대도약을 위해 큰 틀의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회 제8차 회의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로도 병행됐다.

도의원과 학계, 직능·사회단체,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위촉위원 28명과 당연직 10명으로 구성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대근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날 회의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으로 5개년 생태문명 종합계획(안(2022~2026년))과 산업지도 재편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와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생태문명 종합계획(안)'에는 ▲생태문명 전북특성대 운



전북도는 21일 전북 대도약을 위해 큰 틀의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회' 제8차 회의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영, ▲재생에너지 재활용·재사용 지원시설 조성,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 ▲농생명 치유힐링 클러스터 구축 등 분야별 20대 중점과제와 ▲다화용기 활성화 ▲워크숍은 농촌공간에서 등 도민 실천과제를 담았다.

도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과 자료를 거쳐 내년 1월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지도 재편'은 자동차, 조선·기계 등 기존의 주력산업 혁신과

탄소·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선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구축에 관한 내용, 추진상황을 공유·논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생태문명 선도와 산업지도 재편 등 전북 대도약을 위한 주요정책을 도민, 대도약 정책협의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내실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간 생태문명 선도를 위

해 시·군과 함께,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확산을 도모했다.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생태문명 조례 제정 및 '생태문명 자문위원회' 운영 등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도약 정책포럼' 운영으로 생태문명 아젠다 발굴 및 공론화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생태문명 선도 선언으로 시·군과 함께 펼쳐가는 탄소중립 시대 전북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여행체험 1번지 전북에 '한 발짝'

남원 백두대간 생태정거장 서어나무숲 에코 스테이션  
문체부 생태관광 공모에 선정 국비 1억1000만원 확보

전북도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실시한 주요 공모사업에 '그랜드슬램'을 달성, 생태 녹색 성장을 바탕으로 한 '여행체험 1번지 전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도는 남원시가 생태녹색관광을 바탕으로 한 힐링 관광 콘텐츠인 '백두대간 생태정거장 서어나무숲' Eco Station 사업이 문체부의 '2022년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억 1,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체류 목적형 관광지로 전환과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등 지난해 선정된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과 연계, 남원시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생태자원의 특징을 살린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역민과 지역 특색이 담긴 생태관광 상품화 및 관광브랜드 도입, 남원 관광의 핵심 구축을 위해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1억6,000만 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을길 안내체계 구축·산책로 정비·편의시설 확충 등 6,000만 원 투자 등 총 2억2,000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도와 남원시가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의미가 큰 뒷받침이 됐다.

특히, 전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에 생태와 힐링의 컨셉이 잘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남원시를 비롯한 전박연구원 및 외부 관광 분야 전문가들과 공모방향, 효율적인 대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큰 틀을 잡았다.

박장석 도 관광총괄과장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로 관광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조직체계 구성 등 지역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전북도는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와 남원·진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태녹색관광 공모사업'과 연계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해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도는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제20대 대선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존 국책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투자비용과 조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중부권(오송), 영남권(대구·경북), 호남권(정읍)을 잇는 K-바이오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예

## '첨단바이오 중심지' 도약 발걸음 내딛다

도,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대선공약 반영키로

관한 특별법 상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연구소, (전)임상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병원 등을 지역적으로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했다.

이어, 도출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회 건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정읍사에서 후속 용역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정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지로 지난 10월 도 대선공약에 해당 내용을 공식 포함했다.

추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당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전북도는 정읍 연구개발특구 내 총 180만1,000㎡ 면적(연구개발특구 155만

1,000㎡ + 추가 조성 25만㎡)에, 사업비 1조 7,324억원 규모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신약 및 BT기반 의료기기를 주 품목으로 하는 충북 오송 합성신약 및 IT기반 의료기기를 특화한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천연물신약 및 데이터·AI기반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조성한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전북 중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장기

간·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안정적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3,000억원, 고용 창출 효과 2만여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도의 주력산업인 농생명소재 산업과 신산업인 AI·데이터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을 전북도의 차세대 중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 전라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갑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도민 여러분께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